

역대급 '가을 폭우' 광주·전남 인명·재산피해 속출

사흘간 최대 400mm 물폭탄...장흥서 배수로 빠진 80대 사망 농작물 도복·침수 잇따라...주중 최저기온 14도 등 일교차 커

사흘간 광주·전남에 최대 400mm가 넘는 물폭탄이 쏟아지면서 크고 작은 재산피해는 물론, 사망사고도 발생했다.

◇'50년에 한번' 확률...시우량 경신

22일 광주지방기상청 등에 따르면 지난 19일부터 전날까지 광주·전남 주요 지점 강수량은 여수산단이 400.5mm로 가장 많았고 장흥(유치) 384mm, 순천 376.3mm, 강진(성전) 362.5mm, 보성 334.5mm, 화순 247.5mm, 광양 242.3mm, 광주 147.3mm, 목포 108.5mm 등의 순이었다. 전남지역 평균 강수량은 192.6mm였다.

순천은 20일 하루 동안 200.8mm가 내려 9월 일강수량 최고 극값을 갈아치웠는데, 이같은 강수량은 50년에 한 번 있을 수 있는 확률이라는 게 기상청의 설명이다.

시우량(시간당 강수량)은 진도가 112.2mm로 가장 높게 기록된 가운데 해남(산이) 101mm, 강진 96.5mm, 장흥(관산) 90mm 등에도 시간당 100mm 안팎의 '극한 호우'가 쏟아졌다.

보성, 고흥, 영암(학산), 순천(황전), 완도에도 각각 시간당 79.3mm, 74.8mm, 74mm, 69mm, 64.8mm의 집중호우가 내려 진도

·강진·장흥·보성·완도는 기상 관측 이후 가장 높은 시우량을 기록했다.

◇소방활동 1천여건...재산 피해 19억

많은 비로 인해 광주·전남 소방 당국엔 이날까지 각각 5건, 1천95건의 피해 신고가 접수됐다.

광주에 접수된 5건은 모두 나무 쓰러짐 관련 신고로 큰 피해 없이 수습됐다.

반면 전남에선 사망사고까지 일어났다. 이날 오전 11시36분께 장흥군 장흥읍 평화저수지에서 주민 A(89)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

A씨는 전날 오후 6시27분께 실종 신고가 접수됐으며, 당시 장흥읍 일대는 하천에서 불어난 물로 침수된 상태였다.

A씨는 차매를 앓던 부인의 마음을 나갔다가 변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소방 당국과 경찰은 이틀간 수색 끝에 이날 자택과 약 300m 떨어진 지점에서 A씨를 발견했다.

이 밖에도 소방 당국은 해남에서 주택 침수 등이 우려되는 마을 주민 10여 명을 구조하는 등 총 30건의 인명 구조·대피 활동을 펼쳤다. 나머지 활동은 주



집중호우가 쏟아진 지난 21일 전남지역 곳곳에 농경지와 주택 침수 등의 피해가 속출한 가운데 영암군 학산면 일대가 물에 잠겨있다.

〈독자 제공〉

택·도로장에 등 안전 조치 1천11건, 급배수 54건이다.

유례없는 가을 폭우로 발생한 재산 피해는 19억여원(사유시설 17억여원·공공시설 2억3천여만원)으로 잠정 집계됐다. 수확을 앞둔 농작물 피해도 잇따랐는데, 보성 716ha, 해남 95ha, 영암 80ha, 나

주 783ha, 순천 30ha 등 총 1천30ha의 벼가 쓰러졌다.

장흥 한 농협 창고에선 보관 중이던 양곡의 절반 가량인 400t이 침수됐다. 전남도는 도로 등 공공시설 피해지역의 안전조치 강화와 함께 응급복구 조기 완료에 힘쓸 방침이다.

◇주중 최저기온 14도...일교차 커

이번 주 광주·전남은 최저기온이 14도, 최고기온은 30도 이하로 떨어지면서 안전한 가을 날씨를 보이겠다.

23-24일 최저기온은 각각 17-21도, 14-21도, 최고기온은 28-29도도 예보됐다. 25-29일 최저·최고기온은 평년(14-19

도, 24-27도)보다 높은 17-23도, 27-30도로 각각 전망됐다.

광주지방기상청 관계자는 "이번 주 광주·전남은 낮과 밤의 기온차가 10도 내외로 크겠다"며 "급격한 기온변화에 따른 건강관리에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안재영 기자

'선거법 위반' 안도걸 의원 불구속 송치

박근혜 의원 회계 책임자도...광주·전남 총선 수사 마무리 수순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 소환조사를 받았던 더불어민주당 안도걸(광주 동남) 국회의원과 같은 당 박근혜(광주 광산갑) 국회의원의 회계 책임자가 검찰에 송치됐다.

22일 광주경찰청 반부패범죄수사대에 따르면 최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안 의원을 검찰에 송치했다. 선거 캠프에서 불법 행위를 주도했다가 구속된 안 의원의 사촌 동생 A씨를 비롯한 캠프 관계자 16명도 함께다.

안 의원은 제22대 국회의원 선거(4·10 총선) 전 민주당 경선 과정에서 전화홍보방을 불법 운영한 혐의를 받는다.

또 자원봉사자들에게 급여 명목으로 수천만원을 주거나 선거 사무실 운영 자금을 대납하도록 한 혐의도 적용됐다.

수사 중인 1건도 마무리 단계다.

전남경찰청도 82건(113명)의 선거법 사건 중 82건(48명)을 송치해 수사를 마쳤다.

전남에선 더불어민주당 신정훈(나주·화순) 의원과 김문수(순천·광양·곡성·구례갑) 의원이 각각 경선 과정에서 이종투표를 권유한 혐의와 방송사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검찰이 직접 수사한 같은 당 정준호(광주 북구갑) 의원은 불법 전화 홍보방을 운영한 혐의로 기소돼 다음 달 16일 첫 재판을 앞두고 있다.

한편 선출직 공직자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00만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선출직 공직자 본인이 아닌 회계 책임자가 선거비용 제한액을 초과 지출한 혐의가 입증됐다고 판단해 송치했고, 나머지 45건(38명)은 불송치 결정했다.

/안재영 기자

'던지기 수법' 마약 유통 20대 구속

광주 서·남구 일원 배전함·소화전 통해 전달

특정 장소에 마약을 두고 가는 '던지기 수법'으로 필로폰을 유통한 20대가 구속됐다.

22일 광주 서부경찰서에 따르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20대)씨를 구속해 조사 중이다.

A씨는 지난 17-18일 이틀간 광주 서·남구 일원의 한 주택가에서 날개로 포장된 마약류를 배전함·소화전 등의 특정 장소에 숨겨 구매자들에게 전달한 혐의다.

속칭 '던지기 수법'으로 마약을 공급하던 A씨는 "수상한 사람이 밑가를 던지고 달아났다"는 인근 주민의 신고로 지난 19일 오전 서구화정동에서 긴급체포됐다.

검거 당시 A씨의 가방에는 다수의 인원이 투약할 수 있는 다량의 필로폰

등 마약류가 발견됐다.

조사 결과 A씨는 SNS를 통해 알게 된 마약 판매자로부터 1건당 2만원씩 수수료를 받는 조건으로 지시를 받아 마약을 유통한 것으로 드러났으며, 마약간이 시약 검사에서 음성이 나오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모든 혐의를 인정한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의 도주 우려 등을 고려해 지난 20일 구속영장을 신청, 발부반았으며 압수한 휴대전화를 디지털포렌식 해 마약 판매자·구매자 및 유통 경로에 대해 수사 중이다.

/주성학 기자

'휴대전화 유심 개통만 해줘도 유죄'

브로커로부터 수수료를 받고 유심 13개를 개통, 제공한 20대가 기소에서 무죄를 받았으나 항소심에서는 유죄 판결을 받았다.

광주지법 형사3부(김성흠 부장판사)는 22일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무죄를 받은 A(26)씨에 대

로 무죄 판결을 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는 누군지도 모르는 브로커에게 유심을 불법 개통해 주고 반환이나 개통 해지를 요구하지도 않았다"며 "미필적으로나마 개통된 유심이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될 가능성에 관한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안재영 기자

60플라워

Flower

축하화환 3단 근조화환 3단

전국전지역6만배송 (기타낙후지역 배송비 추가요금발생)

Tel. 010-9984-0151 동협 박배성 302-0316-649511

Tape to USB/DVD
영상변환서비스

SONY

USB DVD

영/상/변/환/서/비/스

고객님이 소장하고 계신 TAPES를 가져오시면
USB/DVD로 만들어 드립니다.

- 1 화질 손실 없이 오랫동안 보관할 수 있습니다.
- 2 언제 어디서든 쉽게 영상을 볼 수 있습니다.
- 3 보관 장소가 좁아집니다.

언제 어디서든 쉽게 영상을 볼 수 있습니다!

캠코더·카메라
중고 제품
최고가 매입!
최저가 판매!

DVD 변환전문업체 스마트폰, 태블릿, TV, PC 모두를 위한
Type A, C 듀얼 USB

소니서비스센터 062)522-2000 광주광역시 북구 금남로24 (임동5거리) 직영서비스센터